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니라”
(신명기 9:6)



전주대신문

제 773호

2011년 3월 30일 수요일

대학생활의 꽃 MT, 전공 특수성 살려



역사콘텐츠문화 춘계답사, 국어교육과 임용특강 워크숍 문화관광대학 교내에서 달빛축제로 MT대신해 진행

우리대학의 MT문화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술 문화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MT가 전공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 선후배와 동기들 간에 화합을 쌓는 장으로 바뀌고 있다.

역사콘텐츠문화 전공(전공주임 이상균)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남도 지방의 역사를 알아보는 춘계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춘계 답사는 다양하고 깊은 역사를 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전공수업의 일환으로, MT와 신입생환영회를 겸한 답사였다. 1학년 과대표 이해민 학우는 “2주 전 사전답사를 다녀

온 후, 우리가 답사 때 둘러보게 될 곳들을 미리 볼 수 있어 흥미롭고, 기대감이 컸다. MT라고 해서, 단순히 놀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남도의 여러 역사현장들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학회장 김상민 학우는 “이번 답사로, 우리나라를 짚어나가야 할 역사학도로서 신입생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줄 수 있었고 선후배 간, 동기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성취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의미 없는 단순한 술 문화가 아니라,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MT, 답사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어교육과(학과장 최홍원)에서는 지난 24, 25일에 지리산 일성콘도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임용특강을 했다. 박성하 학우(국어교육과 2)는 “작년까지는 MT였는데, 올해는 ‘워크숍’으로 바뀌었다. 워크숍에서 진행된 ‘임용특강’은 사범대학 학생임에도 잘 알지 못했던 임용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마련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지·면·안·내■

- 2~4 News
연세대의료원과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 EIP사업단 협약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선정
라이언스 장학금 지급
전주대출신 대학총장시대 활짝
총학생회 출범식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자 모집
- 5 Opinion
- 6 Culture
z●●m in-●●t, 문화산책
- 7 Opinion
교수칼럼, 미니인터뷰, 사설
- 8~9 Jump On
생애개발처 ‘진로가이드’
- 10 People
‘달빛 길어 올리기’의 주인공 홍성덕교수
- 11 Campus Life
기자수첩, 동아리소개
게릴라인터뷰, 스도쿠
- 12~13 Mission
로고스, 진리의샘, 겨자씨
선교소식
- 14 중국어 신문
- 15 The JJ Globe

전주대신문

창간 1965년 5월 15일

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00 전주대학교
발행인 이남식/편집인 양병선/편집국장 박소연
인쇄 제일출판/편집국 220-2442/운영실 220-2441

“예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대학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전주대학교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
합니다.

많은 기도와 인내 속에 건설되어온 스타센터가 이
제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캠퍼스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28개의 건
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잘 갖추어진 교육기반위에 진정한 ‘잘 가
르치는 대학’으로서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저
희들에게 지혜와 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라는 재연재해에 너무나도 미약함
을 절감한 저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원했던 저희의 모든 교만과 죄
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모든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 화려한 대학이 아니라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
한 학생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며 새로운 용기와 희
망을 주는 대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
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대학이 되
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새내기들이 있사옵니
다. 그들이 새로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각자
마음속에 품은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돌보아 주
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흥진교수(교육혁신처장)



연세대 의료원과 협약 체결



우리대학 이남식총장과 연세대 의료원 이철원장이 협약식후 사진을 찍고 있다.

의료 전문 인력 양성, 의료 교류 기대

우리대학은 지난 23일 연세대에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서 연세대 의료원(원장 이철)과 양 기관 임원 15명이 참석한 협약을 국가 산업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전문 직업기술

교육 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및 경영지원 활동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본교 대체의학 대학에 관련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필요한 현장실습 및 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전반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남식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폭넓은 의료 교류를 성공적으로 하기를 기대하고, 기독교 정신과 사랑으로 양 기관이 의료산업에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대중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EIP사업단과 협약 체결

지역 환경문제 해결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지역산단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MOU체결을 했다.

산학협력단(단장 심동희)은 지난 16일 세미나실에서 양 기관 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산업단지공단 전북EIP사업단(단장 류재홍)'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 활성화와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 및 자료 협조,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공동개최, 입주기업체의 생태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등 상호간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을 협력하기로 했다.

심동희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 환경문제를 개선하길 바라며,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룡 기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선정

JJ Woman Job Star Plan 실행



지원사업선정으로 여학생들의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취업을 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차진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1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

조적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멘토의식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로써,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지역사회 고학력 여성의 커리어개발 메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진아 센터장은 "우리 학생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나, 아직 그것을 깨닫고 개발할 수 있는 자극과 계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하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Mos Master 자격증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은 학교 홈페이지 JJ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대중 기자

국제라이온스 장학금 지급

국학교전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지급키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학과관계자, 국제라이온스클럽전북지구 강호현 총재와 익산 한우리클럽 유길자 회장일행이 사진을 찍고 있다.

국제라이온스 전북지구(총재 강호현)의 익산 한우리클럽(회장 유길자)은 국학교전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우리대학 학우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1학년도 장학금은 장호연(역사문화콘텐츠 4학년)학생과 한가연(역사문화콘텐츠 2학년)학생이 선정됐다. 지난 17일 라이온스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 금액 확대 방안을 논

의했다. 변주승 교수는 "고전 번역을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마라톤과 비교할 수 있는데 최소 10년의 시간이 흘러야 번역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비교적 관심이 적은 분야인데 라이온스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이 나중에 큰 사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앞으로 고전번역을 하는데도 큰 격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대중 기자

입학사정관제 4차 고교자문단 회의 열려

고교, 대학간 지속적인 연계 프로그램 추진



우리대학 입학관리처(처장 이근호)는 지난 17일 '입학사정관제 4차 고교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

번 회의는 2011학년도 모의입학사정관전형 결과를 통해 향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고교자문단 운영 방향을 설계했다. 또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모의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고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고교-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대중 기자

(동정) 전주대 출신 대학총장시대 활짝

유광찬 총장 포함 4명



왼쪽부터 총장으로 취임된 유광찬 총장, 이승훈 총장, 임동오 총장, 전성재 총장. 이번 모의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우리대학의 약진으로 우리대학 출신인 전주교육대학교 유광찬 총장과 중부대학교 임동오 총장, 대불대학교 이승훈 총장, 성화대학교 전성재 총장이 탄생됐다.

지난달 전주교육대 총장으로 취임한 유광찬 총장은 영문학과(1982)출신이고, 지난 2일 중부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임동오 총장과 지난해 취임한 대불대학교 이승훈 총장과 성화대학교 전성재 총장은 대학원 박사과정 출신이다.

유총장은 취임사에서 '4대 비전

을 제시하고, 인성교육 강화와 능력 있는 교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대학교 임총장은 '학생 중심의 열린 미래지향 교육으로 학생들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또한, 대불대학교 이총장은 '교육 시스템을 학생의 수준에 맞추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등교육분야에서도 우리대학 출신 총장들이 하나 둘씩 부상하고 있으며, 2005년 모교출신 부총장을 선임하기도 하였다.

/권희망 기자



제38대 대한민국 총학생회 출범식

오늘(30일), 더 멋진 대학, 그 첫 번째

제 38대 총학생회(회장 박술/경영대학)는 3월 30일(수) 오후 1시 본교 희망홀 일대에서 '제38회 대한민국 총학생회' 출범식을 갖는다.

이번 총학생회 출범식은 '더 멋진 대학, 그 첫 번째'라는 주제로 열리며, 박술 총학생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백마음원단,

태권도 시범단, 손짓사랑, UCDC, 블링걸, 파랑새, 작은하늘 등 동아리 축하공연이 있으며, 'JJ 식신왕', '프로포즈', '시크릿 패션쇼' 등 학생 참여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인기가수 Miss S, 45RPM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박술 회장은 "더 멋진 대학으

로 거듭나기 위해 학우들이 하나가 되어 소리 내고, 작은 변화로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학우들의 소리를 가슴에 새겨 힘찬 열정과 도전, 성취를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고 행사 중 대학교회 옆 주차장 일부를 통제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학우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대학 제1회 달빛 Festival 개최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를 찾아본다



문화관광대학(학장 송광인)은 4월 1일(금) 오후 2시부터 창조관 일대에서 '제1회 달빛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Festival은 문화관광대학 구성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문광족구대회', '보물찾기', '문화관광

4행시 경연대회', '돌+아이 콘테스트', '찾아라 나의 반쪽', '최고의 Sexy Queen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사 후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이다.

이지수 학생회장(문화관광대학)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문화관광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강한 대학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달빛축제는 문화관광대학 연합 MT를 대신하여 치뤄지는 행사여서 그 의미가 더욱 새롭다.

진로가이드

- MOS Master 자격증반 접수(2차)
- 멘토링 프로그램
- 취업가이드 배부 (3,4학년)
- 직무 인, 적성 검사
- 중국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직장체험 프로그램

생애개발지원실(스타센터 235호)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학생회관 207호)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기술창업자 모집, 4월 15일까지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에서는 2011년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은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사업'에 기술창업자(팀)를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모집한다.

본 사업은 우리대학이 제안한 15개 유망특허를 이전받아 예비

창업팀 및 창업초기기업에게 기술멘토, 사업화기획, 시제품제작, 마케팅 및 제품인증 등 창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천 만원까지 지원 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단에서는 특허기술을 제안한 발명권자가 직접 기술멘토로 참여하여 기술을 밀착전수하고, 전문가들과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산학협력중심대

학(HUNIC사업단) 및 RIS사업단의 시제품제작관련 장비, 창업자들의 입주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학협력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전주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jubi.jj.ac.kr)나 전화(220-2607, 3271)로 상담할 수 있다.

진로취업 상담 및 입사서류 클리닉 안내

생애개발지원실에서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로취업 상담과 입사서류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진로취업 상담,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입사서류 클리닉, 모의면접 클리닉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생애개발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이메일(kkim@jj.a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63-220-2667)
/ 이대중 기자

교내 영어특별반 Special Event

국제교육교류원(원장 고봉성)에서 지난 21일부터 스타타워 402, 403호에서 영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영어특별반은 학우들이 교외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과 함께 교내에서 자신의 공강시간에 영어 공부를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취지이다.

/ 권희망 기자

기사제보 220-2442

MT가는 날
야호! 신난다!! 놀자!!

아내라니 아내라니
우선순우!! 우선순우!!

M.T
Membership training의 약자. 생학기 초에 대학신입생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녀오는 짧은 여행을 일컫는다.

MT는
마(M)시고, 토(T)하는 날이 아닙니다. 술은 적당히 즐기 줄 아는 멋진 전주대인이 됩시다.
-Hoo

대한민국을 이끄는 1% ROTC!

학군사관(ROTC) 52기·53기 후보생 모집안내

-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2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3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1년 3월 7일 ~ 4월 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 1차 필기고사 : 4월 9일(토) / 발표 : 4월 29일(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5. 2 ~ 5. 20(3주) / 발표 : 6월 10일(금)
 - 신원조회 : 6월 13일 ~ 8월 19일(10주)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목)
- ▶ 문의처 : 학군교 (02)3403-7121~4 / 대학 학군단

학생중앙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 지난 23일 jj 아트홀에서 관광경영전공 8명의 학우들이 실습평가회를 가졌다.

관광경영, PPT 실습평가회 호평

지난 동계방학때 실습을 다녀온 관광경영전공 학우들 중 8명을 선발해 지난 23일 jj 아트홀에서 '실습평가회'를 가졌다. 관광경영전공 학우들은 서울과 기타 지역, 중국등으로 실습을 다녀왔고, 평소 수업시간에 배웠던 지식들을 리포트, 여행

사, 항공사, 이벤트 회사 등의 기타 업체에서 업무를 통해 배웠다. 실습평가회는 ppt를 만들어 자신들이 실습한 업체소개 및 업무소개와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이다. 그뿐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알 수 있

다. 실습평가회에서 발표했던 김협(3)학우는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학교내에서 배운 서비스와 실무에서의 서비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강의를 받는 호텔경영학과 학우들의 모습.

호텔경영학과, 특별한 진로탐색 인기

호텔경영학과 2,3,4학년 학우들은 다른 과와는 달리 매주 수요일 진로탐색 시간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대학에서 하는 진로탐색은 전공 지도 교수와 함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시작된 호텔경영학과의 진로탐색은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조원끼리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로써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말함으로써 발표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볼 때

에도 시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김진욱 학우(3)는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 얘기하면서 동기, 선·후배들과의 멤버쉽은 물론 사고력도 기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방법도 기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호텔경영학과의 진로탐색은 토론뿐만 아니라, 독서나 독후감을 쓰는 프로그램도 할 예정이다. /권희망 기자



패션산업전공 두번째 '달란트 나눔' 행사

나눌수록, 더 커지는 재능의 가치와 행복

패션산업전공(전공주임교수-박현정) 재학생 10명은 (사)전북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의 장애우 25명을 학교로 초청하여 창조관 염색디자인실에서 천연염색 강좌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재학생들이 패션전공 학생으로서 갖고 있는 재능을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달란트 나눔'이다. 지난해 12월 티셔츠를 디자인 제작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전달한 첫 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장애우와 함께 '실크 스카프 염색수업'을 진행했다. 환경 친화적인 천연염료(치자, 쪽)를 이용해서 염색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우들을 지도하고, 실습했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 주정아 교수는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과 교수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재능의 가치와 행복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이다'라고 했다. 또한

박다빈 학우(3)는 '그분들은 내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소한 것에서 밝게 웃으며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내가 더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달란트 나눔 행사는 향후에도 강좌, 야외 소풍 등 다양한 방식의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희망 기자

'신입생 독서 길라잡이' 54명 시상



▲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독서길라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학관리처(처장 이근호)는 지난 16일 '신입생 독서 길라잡이'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문화관광학부 이근우 학우 외 53명이다. 이번 행사는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에 합격한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전공도서

및 교양도서 독서활동을 통한 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했다. 전공도서는 지정된 도서 90권 중 1권의 책을 읽은 후 전공도서 독후감을 제출하고, 교양도서는 5권의 교양도서 중 1권을 택하여 입학사정관 블로그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근호 처장은 "이런 행사를 통해 폭넓은 독서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고 입학 전 전공 관련 책을 접해봄으로써 기초역량을 강화하며, 독서 습관을 길러 학문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통합적 사고를 향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유정 수습기자

스타센터 학생증과 지문으로 출석체크

스타센터 전자출결시스템 준비가 되어 스타센터에서 수강하는 재학생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출석체크를 해야 한다. 출석체크는 학생증과 지문으로

가능하다. 지문인식을 통한 스타센터 출입과 출석체크를 원하는 학생은 각 단 대학 행정지원실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대중 기자

모의TOEIC,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재학생, 졸업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내 모의TOEIC 실시한다. 시험일정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다. 응시자 혜택은 모의토익 성적 등급에 따라 Star-T프로그램 SP부여(CA실 문의 요망), 모의토익 무료 응시권 제공이 있다.

수상자 선발은 총점 순위로 결정된다. 접수방법 방문(국제교육교류원) → 응시원서 배부 및 작성 → 수험표 수령(응시료 납부) → 접수완료(유의사항 안내) 기타문의 : 국제교육교류원 ☎(Tel. 063-220-2316)

독자특고

전주대 1만학우는 강좌평가 전면공개를 원합니다!



박솔
총학생회장
(경영관리전공 3)

부푼 기대감과 꿈을 품고 개강한 새 학기를 지나 이제는 캠퍼스의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4월이 다가오고 있다. 신입생들을 비롯하여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들은 학교를 다니는 4년 동

안 전국 여타 대학 보다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 시행하던 강좌평가 공개는 언제 전면 공개 될지 아직도 소식이 없다. 금년도 공개 하였다는 강좌평가는 전면공개가 아닌 일부만 공개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수강신청 기간에만 별도의 장소가 아닌 수강신청 사이트의 강의계획서 안에 공개되어 학우들은 어디에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우리 학우들이 원하는 것은 일부공개와 특정기간의 공개가 아닌 연중 별도 전면공개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강좌평가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강좌평가를 통해 강좌의 질을 높이고 학우들은 수업에 임하는데 있어 책임감

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그 어느 전국 대학보다 가장 으뜸가는 교육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타 대학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 학교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학교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강좌평가 전면공개를 통한 부작용 또한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학우들 또한 항상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혁신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투자 없이는 어떤 결과물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강좌평가 전면공개가 이루어져 전주대학교 1만 학우 모두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더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독자특고

학교 속 사회 경험하기



박지은
(대체건강관리학부 1)

벗꽃이 흩날리며 졸음이 쏟아지는 따뜻한 계절이었던 봄, 하지만 올 해의 봄은 추위를 머금은 채 나의 어른이 되는 첫 걸음을 인도 해 주었다. 낯설고 새로운 학교와 새 학기가 시작하고 내 앞으로 펼쳐질 멋진 대학 생활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대학생이 되면서 장학금과 동아리 활동, 스펙 쌓기 등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우선 남들과 다른 활동 하나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그건 바로 전주대학교 신문사였다.

처음 친 언니의 권유로 관심을 가지게 된 신문사는 내 마음을 마냥 들떠있게 하지만은 않았다. 신

문사라는 곳이 여느 동아리들같이 즐겁고 재밌기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문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친목동아리처럼 '놀이'의 즐거움은 없겠지만 기사를 쓰면서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 해 나가면서 철저한 선후배 관계 속에 녹아 들면 친화력도 생길 것 같았다. 또한 차분한 나에게 신문사는 활발한 성격을 형성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신문사 문 앞에 서 있는 건 당당하고 꿈이 가득한 내가 아니라 발을 동동 굴리며 떨고 있는 나였다. '힘들면 어쩌지,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진 않을까?' 다시 생각해보자' 걱정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날 '좋은 경험은 성공의 자산이다'를 마음 속으로 외치며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찾아갔다. 보람 찬 날들을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간 신문사 앞, 긴장하는 건 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게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열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산처럼 쌓여있는 신문더미, 기사 스크랩과 자료로 어지럽혀진 방이었다. 다음으로 본 건 마침 기사를 쓰고 있던 선배들의 모습이였다. 그들의 힘들어하면서도 열

정이 가득했던 얼굴을 보고 '내가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때 당시 나는 긴장한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질문들이 날카롭게만 느껴졌다. 분위기는 조금 엄숙했지만 편하게 대해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수습기자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도 교지편집부 동아리를 선택했다. 남들보다 빠르게 학교소식을 알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인터뷰를 하고 기사거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 동아리를 관두려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완성 된 신문 속 내 이름을 볼 때의 뿌듯함은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지 대학교에 와서도 다른 것 보다 신문사를 가장 먼저 찾게 된 것 같다.

이제부터 나는 학생과 기자로서 좋은 성적과 기자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 한다.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한 계단씩 성장하는 자신이 되어 후회가 남지 않을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다.

기자칼럼

전주대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박소연 기자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채플 시간에 권복음 전도사님은 '리더'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비전'이란 보여지는 것이고, '리더십'이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쉽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입학 후, 우연히 학교신문을 보고 학생회관 3층에 위치한 신문사를 찾았을 때, 나는 그저 글쓰기를 좋아하고, 글을 쓸 기회를 찾는 학생이었다. 신문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는 수습기자로 활동하게 되었고, 기자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기자는 사전적 정의로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려면 어떤 정보를 얻고, 정보의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를 하더라도, 독자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인터뷰 대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기사를 쓰면서,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어떤 부분을 삭제해야 할지에 따른 빠른 판단이 요구되고, 각 기사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행사를 취재하고, 편집을 해보며, 학생기자 신분으로 많은 것을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습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게 해주었다.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평소에는 궁금한 것이 있어도 쉽게 질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전주대학교 신문사 기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의문사항이나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자료가 주어지면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 어떻게 기사를 구성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는 했다.

신문사 활동을 하면, 한 학기가 바쁘게 지나간다. 항상 기사거리를 생각하고, 취재와 인터뷰로 바쁜 나날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학보사 기자가 아니었으면, 해볼 수 없는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된다. 입학식, 출범식 등 큰 행사에서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되기도 하고, 총장님, 교수님, 특별한 상을 받거나 뜻 깊은 경험을 한 학생들을 만나기도 한다. 기자로서 질문을 하기에 두렵지 않게 된다. 학생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내가 쓴 글이 신문에 실린다는 사실에 보람이 있기도 하다.

물론, 전문적 기자가 아닌 학생이었기에 한계는 있었지만, 기자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쌓은 것 같다. 또, 편집국장이 되면서 기사를 중요도 순서로 배치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신문의 틀 구성을 익힐 수 있었다. 그런 보람이 있었기에, 신문사 활동은 대학생들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 Zoom in-out

쓰나미로 휘청거리는 일본 '지금은 도와줘야 할 때'



기억하는가. 작년 1월 12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200년 만에 7.0에 달하는 최악의 강진이 발생한 사건과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서 9.3의 강진이 발생한 사건을. 재작년에 개봉한 지진해일을 연상케 하는 재난영화 해운대와 비슷한 일이 지난 11일 일본으로 닥쳐왔다.

쓰나미는 '지진 해일'을 뜻하는 일본어인데, 해안을 뜻하는 일본어 '쓰'와 파도의 '나미'가 합쳐져 '항구의 파도'란 말로 선착장에 파도가 밀려온다는 의미이다. 바다 밑

의 해양지각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각의 높이가 달라지며 굴곡이 생겨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로 상하방향으로 출렁거린다. 즉, 파동이 옆으로 계속 전달되어 지진해일 쓰나미를 발생시킨다.

이번 쓰나미는 일본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며 고베의 150배, 아이티보다 500배나 강력한 지진이다. 실제 지진이 발생한 곳은 센다이인데 400km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피해를 입었다. 9.0의 강진과 10m에 달한 쓰나미로 인해 지진해일의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테 현'이 완전 매몰되었고, '어촌 마을 미야기 현'은 해일이 덮쳐 쓰레기장 처럼 보인다. '후쿠시마 현' 역시 실종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철강 공장에 불이 나는 참사까지 겪었다.

평소 지진 안전교육을 실시해 질서적인 대피를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신모 에다케'의 화산 폭발과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있는 정유공장에 불이 났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원전 방사능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배다미(간호학과 1)학우는 "지금 일본의 상황이 많이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생각이 든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알게되었다. 지진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에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진에 따른 경제비용이 최소 16조엔(약 1980억 달러)부터 최대 25조엔(약 3090억달러)에 들었고, 재건하는데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지진 복구를 위해 긴급구조대를 파견했고, 프로골프 선수 김경태, 전미정 선수는 1억 4400만원, 배우인 원빈과 배용준은 각각 2억, 10억원 등 일본을 돕기 위해 기부를 했다. 이렇게 많은 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1000원이라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부했으면 좋겠다. 한편 전북대 총학생회는 17일부터 구정문 앞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돕기 성금 모금을 해서 일본 측에 전할 계획중이다.

우리 전주대 총학생회도 모금운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평소에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함으로써 자국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지구촌,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도와줘야 할 것이다. 과거에 얽매어 일본을 외면한다면 오십보 백보와 다를바없다. 경제와 국민성에서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하고, 나부터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권희망 기자

■ 문화산책 · 책

대한민국 20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라



오늘 읽을 책은 전미옥(CMI연구소 대표)이 쓴 [대한민국 20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라]이다. 대기업 CEO부터 대학 새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생생하게 전한다. 결론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누구와도 쉽게 통하는 사람"이며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

20대들이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노력은 대단하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 20대들이 매달리는 '스펙 5종 세트'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할 기업이 원하는 '스펙 5종 세트'가 서로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졌다.

20대들이 생각하는 '스펙 5종 세트'는 학점, 자격증, 토익점수, 해외연수, 인턴경험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원하는 '스펙 5종 세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능력, 기획서등 문서작성능력, 프리젠테이션능력, 대인관계와 비즈니스 예절, 회사업무와 관련된 상식적 지식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은 후에 그들이 처리한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며, 대학의 교육수준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나라를 이끌 20대들의 커뮤니케이션능력의 부족을 지적하며,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원복 교수의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 중 '우리나라'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직적 사회구조와 수평적 의식구조의 충돌이라고. 수직적 사회구조와 수평적 의식구조가 서로 소통이 잘될 리 없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단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누구와도 쉽게 통하는 사람 기업과 세상이 원하는 통하는 사람

지 화술에 능한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나 '세상과 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금 당신이 20대라면 하루 빨리 세상과 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한다. 세상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목표된 곳에 취업하는 것이 당신의 1차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당신의 꿈을 세상에 소통시키고 성취를 얻어야 한다.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벽창호라 한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벽창호와 일을 하면 미치고 팔짝 뛰게 된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벽창호는 필연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스

펙만 화려하거나 세상에 귀를 막고 사는 '허당'은 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인사담당자들은 농담처럼 "이전 스펙에 속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학 졸업생들이 그토록 원하는 취업 1승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그 답을 말한다. 책을 추천하는 의미가 없다.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도운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백마디 조언보다 내밀고 싶은 책이다. 제발 더 이상 잘못된 대세를 따르지 말고, 책 속에서 자기만의 대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언젠가 '커뮤니케이션 코리아'를 멋지게 만들어낼 전주대학교 20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정진원계장 (생애개발지원실)

고수칼럼



김승종교수
(인문대학 학장)

정의에 도달하는 길

그 해결책의 한계를 제기한다. 둘째, '징병제'와 '대리 출산', '소수집단 우대정책', '동성혼' 등의 예를 통해 자유 시장의 원리와 도덕적 판단 사이에 괴리를 드러낸다. 셋째, 칸트와 롤스를 통해 문제 상황에서의 동기나 순수이성,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과 현대사회에 적용 가능성을 찾아 본다. 넷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판단을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사상과 대립시키며 반론과 비판을 거듭하여 현실 정치에서 '공동 선' 즉 '정의'와 도덕에 이르고자 하는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기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 '정의와 공동선'임으로 미루어볼 때 저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정의론에 좀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강조한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기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저자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를 구성하고, 더불어 그런 문제를 시민의 관심사라는 폭넓은 영역으로

끌어내는 정치를 구상하는 일"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책의 체제도 그렇고 강의의 형식도 마찬가지로 샌델 교수는 독자나 수강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게끔 유도한다. 곧 책과 강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형식 역시 정의에 도달하는 하나의 형식인 셈이다.

지금 우리 대학은 몇 가지 첨예한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 마치 폭주 기관차가 서로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막상 정면충돌 이후에 반드시 찾아올 후유증과 상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이견을 좁혀 생산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샌델이 제안한 것처럼 우리 대학교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공동 선(telos)를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대학교의 목적이 단순히 '생존'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촌 사회에 우리 대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대학교 안에서도 비로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에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은 아무래도 하버드대학교 Michael J. Sandel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원제: justice)이다.

샌델이 말하는 강의(집필) 목적은 학생(독자)들이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한 논란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하기 위함이다. 저자가 선택한 수업의 진행은 딜레마 상황에서 시작된 논의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방식이다.

먼저 여러 가지의 현실적 갈등 상황에서 옳은 판단은 무엇인가 질문한다. 그리고 첫째, 현대 시민들의 의식을 기초로 형성한 논리는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임을 밝히고

사설

스타센터 개관에 부쳐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그토록 갈망했던 Star Center가 드디어 완공되었다. Star Center는 우리대학뿐 아니라 전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우리대학의 한 중심에 우뚝 선 Star Center는 지난 반 세기의 우리 대학의 역사를 다시 쓰는 획기적인 일이다. 이는 우리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노력의 결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Star Center를 주심은 "우리들의 의로움때문이 아니고"(신 9:6)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안에서 하나가 되며 격려와 목적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Star Center가 우리의 명예나 공명심을 들어내는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약한 존재이다. 잘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하고 선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만 실수하며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목표달성에 안주하곤 한다. Star Center의 완공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환태평양 2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셋째, Star Center는 전주대학교의 랜드마크일뿐만 아니라, 전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다. 따라서 Star Center가 우리대학의 중심뿐 아니라 전북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전북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 그리하여 Star Center를 통하여 우리대학이 세계수준 지역대학(Global University)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미니인터뷰

키움증권 금융장학생으로 선발된 강선진 학우



강선진 학우
(종합파이낸스 전공 4)

“나의 꾸준한 노력에 하늘이 감동해 준 선물”

서를 쓰면 유리하다고 해서 지도 교수님께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런데 추천서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할 때라든가, 면접을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굳이 힘든 점을 뽑자면 '행복한 나눔'이라는 카페에 들어가 요구하는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재산증명서 같은 세밀한 서류까지 준비하는 점이였다.

- 주변에서의 반응은?

금융장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교수 추천서를 써주신 지도 교수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축하해주셨다. 가족들도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장하다'고 칭찬하셨고, 친구들과 또한 대단하다고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다.

- 장학금을 받은 것이 학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대도 하지 않았다. 자격증도 없었고, 스펙도 많이 부족했는데, 타게 되어서 너무 기뻐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공부에 욕심이 생겨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또한 면접 예상 질문으로 학업 계획과 졸업 후의 계획을 준비하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

가 되었다. 전에는 은행에만 관심이 있었던 내가 증권에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 금융장학생 조건이 금전적 지원 외에 다른 혜택이 있는지?

내가 전공하려는 분야와 비슷하기 때문에 키움증권 회사에서 하게 인턴을 해보라고 추천을 했다. 아직 생각 중이지만, 인턴 경험으로 인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취업할 때 원서를 지원하면 1차 서류 전형을 합격 시켜 준다고도 했다.

- 우리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대학에 들어와서 출석, 레포트, 숙제, 시험공부 등 그냥 뭐든지 열심히만 했다. 자격증도 많이 취득 못했고, 스펙도 쌓아둔 것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성실함덕분에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물론 우리 학우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알아봐주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었으면 한다. 파이팅!!

/권희망 기자

3학년 때 금융보험학과에서 종합파이낸스전공으로 늦은 전과를 했지만, 성적 우수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전주시 우수인재장학금을 받은 그녀. 조교 선생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키움증권에서 전국에서는 43명, 전북에서는 2명, 그 중의 경쟁률을 뚫고 금융장학생으로 선발된 당찬 그녀를 만나보자.

- 키움증권과 연관된 장학금제도를 알게 된 계기는??

조교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과 성적이 좋은 것이 자격 조건이 되어서 키움증권 장학제도에 지원하게 되었다.

- 키움증권 장학금을 받기 위해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은 있는지??

조교 선생님과 교수님 등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 지도 교수 추천



JJ Superstar Career Guide

나만의 스토리로 취업문 빛장열기



〈 편집자 주 〉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고. 새학기가 한 달이 흐르는 시점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남다를 터, 진로가이드를 따라가보자.

■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하루에 가장 많이 듣거나 보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 ‘스펙’일 것이다. 스펙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 ‘Specification’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설계지시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뜻한다. 스펙은 인간을 제품화하며, 제품화는 필연 서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제품 조건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평생 경쟁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스펙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펙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에서는 스펙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틀과 시각을 고수한다면 평생 경쟁의 악순환에서 더 큰 고통을 맞게 될 것이다. ‘최고’를 위해 스펙을 따라 무한 경쟁에 돌입하지 말고, 자신만의 유일한 ‘스토리’를 따라 빛나는 존재로 살아 가라는 것이다.

그럼 스토리란 무엇인가? 스토리란 개인의 경험이 모여서 획득되는 하나의 장엄한 서사이다.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사람,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는 이야기로 세계인의 감동을 준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산다는 것은 바로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삶에 책임지고 답변하는 것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취업의 본질,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이다. 취업도 인생도 바로 질문을 받는 것이다. 삶이 던지는, 혹은 면접관이 던지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인생의 모든 과정은 바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자신만의 스토리이다. 그것은 결코 스펙이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다. 스토리는 곧 우리의 삶 자체가기 때문이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내 삶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이며,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스토리는 바로 충실한 삶의 증거이다.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함께 성취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어 한다.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혹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탓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스토리는 기회를 부른다. 대학생활은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최고의 시기다. 역사(History)는 ‘그의 스펙(his spec)’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his story)다.(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에서 발췌)

➔ JJ Superstar를 위한 진로가이드

대학생활은 나의 꿈,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신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 4년을 통하여 ‘알맹이’, 곧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1 첫째,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말도 자신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학교에서 아무리 훌륭한 강사를 초청하여 인생의 귀감이 되는 얘기를 해줘도,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보다도 흥미를 못 느낀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필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목표가 분명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대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2 둘째, 수업에 충실하자. 성적은 성실함의 판단지수다.

대학에 들어온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교재와 노트도 없이 앉아 있거나, 휴대전화에 마음을 빼겨 집중하지 못한다면 언제 전공에 대한 실력을 쌓을 수 있겠는가. 집중해서 듣고, 노트 필기하고, 리포트도 본인이 직접 문헌을 찾아 조사하고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이것이 곧 실력이 되어 사회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3 셋째, 동아리나 스터디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자

동아리는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만큼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관심분야가 같은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가다보면 자신의 관심분야나 끼, 장점 등을 더욱 발견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이뤄 함께 도전하고 체험했던 경험들은 사회로 진출했을 때 조직 적응력, 우수한 업무능력, 리더십 등으로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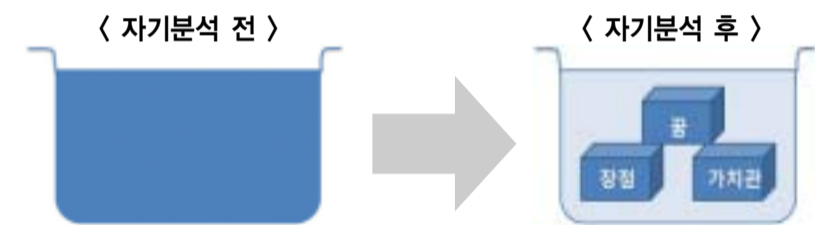
■ 나도 나를 모르는데 취업을 하겠다고? 나를 먼저 깨닫고 취업에 도전하라!!



면접이 막 시작되고,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취업활동은 상대에게 자신을 파는 것과 같다. 자신을 기업에 얼마나 잘 팔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착각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없다. 기업 쪽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 할리가 없고 따라서 채용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팔아야 한다면 우선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기업에 나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도 모르는데 자신을 알리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 자신에 대해 미리 정리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분석이다. 자기분석을 하기 전에는 ‘불안’으로 인해 수조가 혼탁한 상태이다. 수조안이 잘 보이지 않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분석을 하면 수조안에 장점과 가치관, 꿈 등이 확실하게 보인다.



자기분석을 하면 효율적으로 취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업연구나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등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 그만 둘 수도 없어 낭패를 보게 된다. 자기분석이 정확하면 목적에 맞는 기업을 연구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열중한 일, 좋아한 일, 좋아하는 말 등을 통해 ‘가치관’을, 현재의 대학생활(스터디, 동아리활동, 자격취득, 수상활동, 학생회활동,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장점’을, 미래에 일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것,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꿈’을 발견할 수 있다. 확실한 기초(자기분석)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여기 전주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관, 장점, 꿈을 발견하길 바란다.(나도 나를 모르는데 취업을? 하겠다고 에서 발췌)

4 넷째, 인맥을 관리하자

대학은 성인기를 시작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회생활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발점부터 자기관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맥관리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직장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탄탄하게 잘 쌓여진 인맥의 힘에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특별한 비법이 무엇인지 캠퍼스에서 배울 수 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은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서로 신뢰와 정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 선배, 동기, 조교, 교직원 모두가 여러분의 인맥관리 우선순위 대상임을 명심하라.


5 다섯째,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보자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하는 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적, 신분, 연령, 직업 등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다른 나라의 문화, 전통, 관습 등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어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게 된다. 해외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해외문화탐방,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Working Holiday, Work&Travel, 해외 인턴십 등이 있다. 한번 도전해 볼길 권한다.(국제교육교류원 220-2122, 학생지원실(220-2163)로 문의)

6 여섯째, 취업준비 혼자하지 말자

취업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미래의 직업을 예측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일은 만만치가 않다. 나의 성격, 인 · 적성, 직업흥미가 무엇인지, 직업세계는 어떻게 변해 가는지, 미래 유망직종은 무엇인지,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혼자 알아서 척척 준비할 수도 있지만, 교수, 선배, 멘토, 교내외의 취업전문가와 수시로 상담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 취업지원부서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StarT Program, StarTrack(취업동아리), PCMP가 있으며, 각종 유망 자격증반이 수시로 운영되고 있다. (생애개발지원실 220-216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220-2027, 카운슬링센터 220-2062로 문의)

/ 이명숙 과장(생애개발지원실)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달빛 길어올리기’의 주인공
홍성덕 교수 (역사문화콘텐츠)

후회는 하지 않되, 반성은 하라 20대, 할 수 있는 놀이는 모두하라



〈 편집자 주 〉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를 신설합니다. 이슈가 되는 분이나 평소 읽고 싶은 분을 찾아 그의 삶에 드러워진 결을 더듬어보는 지면입니다. 이야기 속에 드러난 인생무늬가 독자여러분에게 새로운 빛으로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1. 교수님이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 되돌아본다면?

-역사학과를 전공했던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1년을 석·박사 과정을 준비하며 전공 공부에 집중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연구자의 길을 걷는 것이 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의 길에도 여러 갈림길이 있는데, 내 마음속의 원칙으로 삼고 싶었던 것은 '지역에 대한 봉사'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그때부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록원에 취직을 했지만, 그때도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 힘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전주시 시정발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4년간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전북대 박물관에서 공문서 데이터 구축을 했다.

우리지역을 어떻게 해야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 교육자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졌다. 그래서 현재 우리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우리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 때로는 아빠처럼 조언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 '지역에 대한 봉사'에 대한 견해는?

-공부와 비슷한 맥락이다.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기피하게 되지만,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다. 고장을 사랑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나는 우리 고장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알려야 우리 지역이 발전될 지 생각했다. 그것이 곧 '지역에 대한 봉사'로 이어졌다.

3.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더 빠른 진로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누구나 하는 후회지만, 나 역시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대체로 후회는 하지 않는 편이다. 내가 한 선택은 후회하면 안 된다. 난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않는다. 후회와 반성은 많은 차이가 있다. 반성은 꼭 필요하다. 나를 되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4. 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대답하기 힘들다. 원하는 성과를 얻었을 때 난 행복감을 느꼈다. 행복했던 순간은 많지만,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다. 사람은 나에게 한없이 너그러워 진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 있다. "남에게는 너그럽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나는 이 말에 많은 공감을 한다. 행복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한다. 난 아직 배고프다.

5.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가 교수님의 이야기라면데..

-영화 '달빛 길어 올리기'는 임권택 감독이 만든 101번째 영화다. 임권택 감독은 100번째 영화를 끝으로 제작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문득 한지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 영화는 한지를 소재로 만든 영화이다. 난 한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 임권택감독이 날 찾아왔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참 한지에 관심을 쏟을 때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조선왕조실록 보관을 우리지역 전통한지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 복원사업이 영화로 만들어 진 것이다. 영화 '달빛 길

어올리기'는 전통한지 뿐만 아니라 전주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6. 외부활동이 다양하시던데...

-외부활동에 힘을 많이 썼다.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외부활동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정책화, 연구?평가?조사 등 그 나름대로의 행복감을 느낀다. 외부활동은 매력적이다.

한옥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다. 도로 확장에 관해 반대를 했다. 그 당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도로 확장으로 인해 한옥마을이 많은 발전을 했다. 이를 통해서 느꼈다. 외부활동으로 인해 자극을 받아야 한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도 발견하며, 나아갈 방향도 모색할 수 있어서 좋다. 한옥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다.

7. 가장 좋아하는 단어와 그 이유는?

-“후회는 하지 않되, 반성은 하라.”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한 선택에 대해 후회는 하면 안된다. 그 당시 내가 한 선택은 아마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반성은 꼭 필요하다. 반성은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회가 된다.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도 좋아한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나부터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8. 교수님이 생각하는 비전은?

-대학의 발전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톱니바퀴 처럼 서로 잘 맞물려야 한다. 거기에는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대학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내면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대학을 사랑 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학우들이 우리대학을 사랑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교직원·교수의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은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9. 올해 목표가 있다면?

-4학년 100%취업을 달성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 학생들이 원하는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올해 취업 100% 달성 할 수 있다고 본다.

10. 학우들에게 한말씀.

-20대가 가장 큰 장점은 '젊음'이다.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놀이는 다 해봤으면 한다.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놀이가 따로 있다. 그것을 찾아 해보는 것은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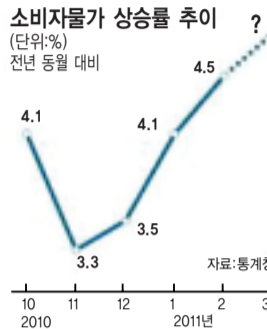
대학생 때 사랑을 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나는 항상 꿈을 꾸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 노력에 성취감을 느끼곤 한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대학 학우들도 꿈을 꿔보면 좋겠다.

기자/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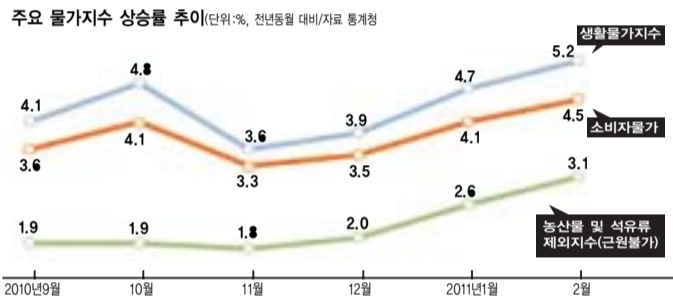
서민물가 '적신호'

-최근 꾸준한 물가상승으로, 학생들 발목 붙잡아-



최근3년간 MB물가 상승률
*2008년 2월과 2011년 2월 비교
(단위:%, 자료:경실련)

항목	상승률
MB물가지수(52개품목)	20.4
배추	114.2
마늘	89.8
세제	77.8
알미	74.8
고등어	74.8
파	70.5
돼지고기	62.1
고추장	40.2
설탕	38.8
우유	31.4
쌀	28.4
사과	28.2
무	26.2
두부	26.1
통유	24.3
마른 멸치	23.9
화장지	22.9



부산(5.2%), 대전(5.2%), 울산(5.1%) 등 지방 광역시는 5% 선을 넘어섰다. 수도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지방이 훨씬 높다. 이처럼 지방의 농축수산물 가격이 비싼 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유통체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즉 도매상과 할인점이 잘 갖춰진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 경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에 반영되는 시차가 더 빠르고 높다는 이야기다.

최근 꾸준한 식품 값 상승으로 인해 대학식당가들이 밥값을 올리고 있다. 우리 대학식당도 밥값이 200원 인상됐다. 사회복지학 전공 4학년 김C(익명) 학우는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학생이라서 부담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돈이 많이 들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꾸준한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지갑을 열어볼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가격이 비싼 것은 구입하기 힘들어 소비성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시장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주요 품목의 물가에 대해 서민경제를 위해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 이른바 'MB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별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 최근 극심한 물가폭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적신호다.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 북아프리카 중동 정정 불안으로 3월 물가가 2월의 물가 상승률(4.5%)을 넘어 5%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6개 시도에서는 서울(4.1%), 경기(4.3%), 인천(4.4%) 등 수도권 지역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

발생한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사는 법이 조금 달라졌다. 돼지고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두부나, 콩나물의 소비가 늘었다. 기름 값이 올라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처럼 물가상승으로 살기 힘들어 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대학식당가 밥값등 체감물가 상승 학생들 지갑달아, 대학가 경기 썰렁

스도쿠 풀어보기

773호

	8	1		7	3		
						4	7
4			1				5
		5					
		9			6		3
2			6	8			
8	1						3
				9			6

★규칙★

1. 아홉 개의 3×3 칸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2. 아홉 가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3. 아홉 세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전공별 1명)으로 6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jjnews@jj.ac.kr (이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772호 정답

6	5	9	5	1	3	7	2	4
1	2	7	4	6	8	5	3	9
4	3	5	2	7	9	1	6	8
5	9	2	3	8	4	6	1	7
3	7	6	9	5	1	4	8	2
8	4	1	6	2	7	9	5	3
2	1	4	7	3	6	8	9	5
7	5	8	1	9	2	3	4	6
9	6	3	8	4	5	2	7	1

★ 772호 당첨자 ★

- 두사라(관광경영전공 4) 민천기(과학교육과 3)
- 유슬기(한문교육과 2) 홍혜미(행정학과 4)
- 배성민(건축학과 1) 안진환(생활체육전공 2)

동아리

자원봉사동아리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은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마음을 소통하는 모임이다. 말 그대로 자발적인 지원과 활동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동암재활학교,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사과나무 노인복지관, 함께하는 교회'를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직접 찾아간다."고 말했다. 회장 이은정(사회복지 3)은 "동아리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김광룡 기자

- 위치 : 학생회관 5층 514호
- 연락처 : 이은정 회장, 010-4233-5452

게릴라 인터뷰



게릴라 인터뷰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Q. 20분 뒤에 쓰나미가 오고 있다. 당신은 집에서 한 가지를 챙겨갈 수 있는데, 무엇을 챙겨갈 것인가?? (이유와 함께)

- 새로 산 고가의 원피스. 비싼 원피스를 한번도 입어보지 못했기에 이왕 죽는 거면 죽기전에 한번 입고서 죽고 싶다. 광태은(호텔경영학 4)
- 사진첩. 나 혼자 살아남는다면 그리운 가족들을 보려고. 박하나(작업치료학 2)
- 고무장갑. 해운대 영화처럼 전봇대 잡고 감전이 되지 않기위해서. 김유미(상담심리학 2)
- 튜브. 쓰나미가 와도 둥둥 떠다닐 수 있도록. 정수정(호텔경영학 2)
- 세탁기. 세탁기 안에 들어가면 쓰나미에 휩쓸려도 살 것 같아서. 김희주(전통음식 3)
- 오리털 점퍼. 물에 뜰 수 있게!! 최유진(세무학 2)
- 그럴 시간있으면 산이나 옥상으로 도망이나 가겠다. 한성인(언어문화학부 1)
- 엄마 죄송해요..ㅠ 여자친구 데리고 간다. 익명(수학교육 1)
- 노트북. 아이유 동영상이 있어서. 라용호(건강식품기능학 3)
- 지갑.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기 때문이다. 이국주(금융보험부동산학 1)
- 남자친구. 우리 둘만 살아남아 대를 잇고, 인류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하지혜(법·경찰 행정학 2)
- 성경책. 성경책은 소중한니까.. 조은하(영문학 2)
- 핸드폰. 연락해야하니까.. 박현아(시각디자인 2)

* 소개를 원하시는 동아리와 게릴라 인터뷰 질문이 떠오른 분은 전주대신문사 클럽(http://jjnews.cyworld.com)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고난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효진 교수
(외식산업학과)

사랑하는 전주대학교 학생여러분! 새내기를 비롯하여 신학기를 맞이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노력한 만큼 또 기대한 만큼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괴로움 한번 없이, 실패나 좌절은 커녕 하는일마다 무엇이든지 다 잘되기만 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성경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자는 고난을 겪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동안 모세를 고난속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사도인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온 열방에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을 통해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우릴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선야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양의 삶을 아실 것입니다. 이지선양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지선양은 살아 있음을 감사하게 되

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큰 슬픔과 아픔을 다 이겨내어 지금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작년 초에는 자신과 같은 화상환자를 도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마라톤 풀코스를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지선양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지선양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사고 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초라하다고 또는 자신의 삶이 형편없고 막막하다

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 : 9)”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처한 고난 속에서 더더욱 나에게 주님의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 부르짖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전히 영광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주대 학생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능치못함이 없으십니다.

전주대학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제 더 멋진 대학으로의 도약을 여러분들과 같이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집을 지으셨다. 일곱 기둥으로 세우셨다.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잔칫상을 차렸다. 여종을 보내어 성 중 높은 곳에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잠9:2).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 왕이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아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모두들 자기 밭으로, 가게로 달려갔다. 왕의 초청에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잔치가 좋지만 나에겐 좋은 옷이 없소.” “낮선 사람들과 대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오.” “왕의 잔치에는 거물이 참석할 텐데 나는 어울리지 않소.” “왕이 초청했지만 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오.” 세상 끝날에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양은 오른 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하셨다. 그 때에 왕이 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되물었다. “주여, 저희들이 어느 때에 그러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상을 주셨다.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신다. 복주시기 위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러나 타성에 젖은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주님을 모른 채 한다. 좁은 자기의 생각에 안주하여 무슨 일에서든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사랑으로 용서하기 보다는 공의라는 이름으로 그저 힐난하고 단죄하려는 우리를 권면하신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잠9:3). 아멘.

장선철 처장 (선교지원처)



“하나님의 계획” (삼상 1:1-20)



이진호목사
(전주동천교회, 예체능대학 전담목회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내가 직접 나서면 해결되는 고통도 있고, 내가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때문에 늘 의기소침하였는데, 남편 엘가나는 다시금 결혼해서 다른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부인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브닌나를 ‘대적’(6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나의 상황은 참으로 첩첩산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한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나의 상황은 숨한번 제대로 못쉬는 상황인데 그

나마 남편 앞에서 평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번번히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견디어 가는 인생이었던듯 보입니다. 그러다 자신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자신앞에 펼쳐지자 드디어 한나는 남편의 존전의 위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앞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에 의한 삶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앞으로 나아 왔을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속으로 인도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의 욕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속으로 이끌 때는 고통이라는 소중한 도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와 그저 행복한 삶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한나를 통해서 너무나도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무엘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택한 백성이 인간의 계획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속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실패한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성공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해결책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오십시오. 나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속으로 승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삶의 희열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맛볼 것입니다.

따스한 이 봄날 하나님의 따스한 만져주심으로 행복을 만끽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제 1회 전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예술 경연대회 개최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전북CBS와 공동으로 제1회 전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기존의 복음성가(CCM) 대회의 개념을 떠나 보컬과 악기, 그리고 댄스를 포함한 찬양의 전반적 요소를 갖춘 예배예술로서 다양한 분야의 경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아울러 대상은 본교 입학 시 4년간 등록금 면제 등 다양한 수혜 혜택이 있다.

1. 참가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2. 참가분야 : 보컬, 키보드, 기타, 베이스기타, 워십댄스, 드럼, 찬양팀 앙상블 (중복 접수 불가)
3. 참가비 : 개인-10,000원 / 팀-20,000원 (우리은행 1002-143-861395 / 예금주: 고정수)
4. 분야별 요강

분야	곡	시간	비고
Keyboard	자유곡 (창작곡 또는 기성곡)	3~5분 이내	Solo 참가 (2명 이상은 모두 팀앙상블로 참가)
Vocal			
Guitar			
Bass			
Drum			
Worship Dance			
Team Ensemble			팀별 시상

5. 접수기간 : 2011년 3월 21일(월) ~ 2011년 4월 20일(수)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 홈페이지(mission.jj.ac.kr)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kht9714@gmail.com)로 접수]

구분	날짜	시간	장소
예선	2011. 05. 04	11:00	JJ아트홀
본선	2011. 05. 04	16:00	JJ아트홀
시상식	2011. 05. 12	14:00	스타센터 온누리홀

6. 문의 :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 ☎(063)220-2699/2130, mission.jj.ac.kr



금요중보기도회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원하는 교수, 직원, 학생들과 함께 중보기도회 시간을 갖는다. 권복을 전도사의 인도로 진행되는 기도회는 찬양과 말씀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와 나눔에 서부터 캠퍼스와 열방을 향한 중보 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중보기도요청 : graceha@jj.ac.kr (하혜숙 교수 중보기도팀장)

기독교동아리 및 선교단체 간담회

지난 3월 10일 기독교동아리 및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대표학생들이 스타타워 VIP식당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모임은 개강과 함께 캠퍼스 선교 및 복음화를 위해 함께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그 사안으로 캠퍼스에서 이단활동에 대한 대처와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그

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되었다.

또한 3월 23일 수요일에는 캠퍼스 전체에서 "이단 신천지"라는 전단지 배포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영생고등학교 종교수업지원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기독교고등학교 채플지원과 연계하여 영생고등학교의 종교수업을 지원한다. 강인혁, 권복음, 장정주 전도사는 3월 10일부터 2011년도 1학기 영생고등학교 1,2학년의 종교수업(주 10시간)에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게 꿈과 비전을 선포하며 올바른 인성에 대한 소양을 기르며 영상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주제와 컨텐트를 활용하고 수업내용에 대한 토의를 바탕으로 하는 멤버십 함양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입체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대학교회 대학부 수련회

대학교회 대학부에서는 2011년 3월 25-26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진행한다. "하나님과 1박 2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찬양과 기도가 풍성하고 나눔과 교제에 감동이 있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지구가 잠드는 한 시간.

불 꺼진 지구의 더 반짝이는 한 시간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은 세계야생기금에 의해 처음시작된 지구의 시간(Earth Hour)에 동참했다. 지난 3월 26일 20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불 꺼진 생활관은 지구를 더욱 반짝이게 했다. 학생생활관은 이밖에도 Save Green, 5Save+를 진행중에 있고, 탄소 줄이기 등 에너지절약에 관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힘, 에너지 절약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학생생활관 목요기도회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스타타워 4층 세미나실에서 대학발전과 학생들의 영성능력을 강화하고자 슈퍼스타 목요일아침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기도회를 통해 생활관의 말씀 복음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학생

활문화조성, 나아가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Super Star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월 '은혜 받은 사람들', 5월 '성령 받은 사람들'이란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신임교수 심방

지난 23일(수)에서 24일(목)까지 장선철 처장(선교지원처)과 김승수 목사(대학교회)는 신임교수를 12명을 방문하여 기도제목을 나누고 중보하 시간을 가졌다. 교제와 나눔을 통해 신임교수들이 크게 격려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선교동정 | 장선철 처장 특강

- 03. 17(목)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
- 03. 18(금) 화개교회
- 03. 20(일) 정읍중앙교회
- 03. 28(월) 순천노회 교사연수회
- 03. 29(화) 전주시민강좌
- 03. 30(수) 장로교 통합 목회자세미나

대학교회 예배시간

- 새벽예배 월~금 06:00
- 주일낮예배 주일 11:00
- 대학청년부 주일 13:30
- 수요예배 수요일 19:00



正在签署旨在解决地区环境问题的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谅解备忘录)

产学协力团-韩国产业工业园工团全北EIP事业团 协议

- 为解决地区环境问题建设有机的合作体系

在3月16日(周三)上午11时产学协力团研讨室中,全州大学产学协力团(团长 沈东锡)与韩国产业工业园工团全北EIP事业团(团长 柳在勋)共9名相关人员出席的会议上签订了协议。

此次协议旨在建设能够解决可再生生活

性化及地区环境问题的有机的合作体系,主要合作领域为针对问题解决的共同研究,产业园运营及各种情报和资料协助,新技术开发的共同研究及专家演讲会的共同举办,研究开发事业共同举办,促进产业园入驻企业的生态产业园活性化

化的合作等增进相互间共同发展和友好的事项。

沈东锡团长指出,“希望通过此次协议,两机关相互合作,努力改善地区环境,并为持续的致力于环境问题的共同解决而加强交流”。

2011全北大学生志愿者 博客记者团招聘

- 突破现有宣传方式, 展现网络宣传魅力 -

由“全罗北道志愿者综合中心”和“全北大学志愿者团”联合主办的博客记者团正在火热招聘中。

“2011年4月~11月”为期8个月的活动,以关心志愿者活动的大学生为对象,必定会在学生的积极响应和参与中产生深远意义。

依据不同分工(视频,编辑,新闻,文章,博客)进行担当并能够保证每月2次以上投稿者均可申请。

申请方法:向各学校及中心以邮件形式提交志愿书。

具体事宜咨询,请联系我们:
全罗北道志愿者综合中心研究协力部
大学生担当
(063-227-1365)



酒店经营专业进路探索课上的同学们

酒店经营专业与众不同的进路探索

与其他专业不同,酒店经营专业2、3、4学年的学生每周三在进路探索时间里针对固定的主题相互讨论并进行发表。

我们学校的进路探索是学生在专业指导教授的引领下,针对自身的前途进路进行探索并获取信息的时间。但是,上周开始的酒店经营专业的进路探索,通过组员间对既定主题互相讨论并轮流发表的方式,针对社会、经济、政治等各个领域的热点问题,不仅局限于知识层面的讨论,更注重培养在大众面前自如表达观点的能力。同时,重视训练学生在就业面试中遇到敏感提

问时不慌张,并有条理的表达自己的想法的素质。

金振旭同学(3年级)表示,“针对容易忽视的社会问题进行思考并相互交流,对由同学,前后辈组成的团队来说,既可以培养思考力,又能锻炼在大众面前沉着发表的能力,好处多多!同时,希望以后能有更多的机会去讨论更多的主题”。

酒店经营专业的进路探索不仅局限于讨论,读书和阅读后感活动也在他们的计划之中。

/权希望 记者

最开心的生活细节

下面列出的这30件最开心的事,其实都是些生活琐事,也许你平时不曾注意,可一经提起就会感觉,世界瞬间变得如此美好。

1. 摸摸口袋,竟然发现里面有钱
2. 成功赶上将要出发的汽车或火车
3. 别人为你按着电梯门的“开”键,等你进来
4. 电话响了,你拿起听筒发现正是刚才在想的人
5. 请别人为你投资,他一下子抢到了最棒的部位
6. 突然想起小时候最好的朋友的电话号码
7. 你打算买的东西降价了
8. 干净俐落地删下有黏性的价格标签
9. 衣服上弄了污渍,但轻松洗掉了
10. 把手指上的刺挑出来了
11. 倾听烤肉在烤架上发出“滋滋”的声音
12. 一下子将废物扔进了垃圾桶,太准了
13. 想着今天是星期三,其实是星期五
14. 和朋友一起聊明星八卦
15. 把最后一块肉放进拼盘里
16. 从洗衣机里取出的两只袜子刚好是一双
17. 完美地磕开一个鸡蛋
18. 收到一封信,贴着邮票,地址是手写的
19. 清空电脑的回收站
20. 终于解开一个死结
21. 换了张干净的床单
22. 坐飞机时,一大排座位就你一个人
23. 炎热天气喝下一杯冰水
24. 下雪后,第一个踩出脚印
25. 吃妈妈做的炒鸡蛋
26. 开了半天车,一路绿灯
27. 屋外下着雨,你躺在床上睡觉
28. 排队时,你所在的队伍最快了
29. 广告时间换了频道,返回来的时候节目恰好开始
30. 发现明年生日那天是星期六或星期天

于艳艳(国语国文 4年级)

The Center for Femal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was selected for sponsorship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actice for JJ Woman Job Star Plan



Trying to help women's right and career development.

The Center for Femal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hief Cha Jin A) was selected for sponsorship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or 2011. This will contribute to career management assistance for female students, and increasing the employment rate.

This program will run from March 1st to

December 31st for current students. Unemployed women with high academic ability an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local area are eligible. This mentoring program is designed to help women cope with structural obstacles and current employment problems that they face.

Chief, Cha Jin-A said "our students have

outstanding abilities, but they haven't found the right motivation and stimuli to realize their potential. Our centre will help every student to find the perfect job to live the life she has planned."

Currently, Mos Master Certification class is underway, and other related programs are posted on the JJU bulletin board.

Period for University presidents from Jeonju University Alumni

4 presidents including President Yoo Gwang Chan



From left: Presidents Yoo Gwang Chan, Lee Seung Hoon, Lim Dong O, Jeon Sung Jae

Jeonju University can be proud of four new university presidents: Yoo Gwang Chan of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im Dong Ho of Joongbu University, Lee Seung Hoon of Dae Boon University and Jeon Seong Jae of Seong Hwa University. This is the result of the rapid progress made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Lee Nam Sik.

President Yoo Gwang Chan, who was appointed last month,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1982) and President Lim Dong O and President Lee Seung Hoon are doctoral graduate students.

President Yoo said in his inaugural address that he has "four visions and will try my

best to train excellent teachers." President Lim stated his goal to "provide a university where students are satisfied, and the curriculum is student-centered and future oriented." President Lee wants a 'curriculum that will match the level of our students and train the human resources which our society needs,"

Jeonju University alumni are becoming leaders in the higher education field throughout the country and here at home, as Jeonju University appointed our vice president from our alumni in 2005.

Bible Devotion

Unveiled Faces

Brian Heldenbrand

Colossians 3:12-17
"Therefore, as God's chosen people, holy and dearly loved, clothe yourselves with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whatever grievances you may have against one another.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which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and as you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The Bible offers us an excellent recipe for a healthy heart. As most of us are aware of, every season there is a fashion trend or the return of a fashion style from the past that causes clothing

businesses and us, the shoppers, to run and purchase these kinds of clothes. It is interesting that what was fashionable last year is generally not the "hot" item the next year. However, if we look at fashion according to God's preference for His people, it tells us that the clothing style of a compassionate heart, a kind heart, a humble heart, a gentle and patient heart filled with love and forgiveness toward others, as well as a thankful heart, never goes out of style, but should be a past, present, and future clothing selection for all of God's people. God's clothing request for His people never becomes out-of-date.

In the morning, as we look in the mirror to check out how we look in hopes that others might compliment us on our new style, let's take time this week to look in the mirror and close our eyes, and ask God if our hearts look beautiful to Him. Let's dress up our hearts properly and look beautiful for the Lord. It is God's style of clothing that will lead others to Jesus.

The 50th anniversary foundation of OECD English Essay Competition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o commemorate and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ECD's founding, Korea's 15th anniversary in the organization, and to shed new light of the meaning and role of the OECD and Korea's role in its future, the English Essay competition is held by Maeil Economy Newspaper and OECD Korea. It is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 Policy and students from the G20 period are all eligible to participate.

The deadline is April 15th, and the necessary documents for application are proof of

enrollment or leave of absence and a copy of an official identification card. Grand prize winner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visit the OECD Forum held in Paris from May 24th~25th, supported with airfare and accommodation. For more details contact Lee Seung Jin, researcher in the Local Research Cooperative Department, International Area Research Centre of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 Policy.

(Tel. 02-3460-1143,
E-mail. sjlee@kiep.go.kr)

제 1회 전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예술 경연대회

참가대상 : 믿음의 중 · 고등학생

참가분야 : 보컬, 키보드, 기타, 베이스, 워십댄스, 드럼, 앙상블

■ 접수 : 2011. 3. 20. ~ 4. 20.

■ 예 선 : 2011. 5. 4 11:00 / JJ아트홀

■ 본 선 : 2011. 5. 4 16:00 / JJ아트홀

입상자 특전 : 전주대학교 총장상, 상금 및 입시 가산점, 장학금 수여

대상(1팀) : 전주대 총장상, 시상금 1백만원 및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최우수상(3팀) : 전주대 총장상, 시상금 70만원 및 한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금상(4팀) : 전주대 총장상, 시상금 50만원

은상(4명) : 전주대 총장상, 시상금 30만원

장려상(1팀), 창작상(1팀), 기쁨상(1팀) : 전주대 총장상, 시상금 20만원

문의 :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 (063-220-2699 / 2130)

┃주최 : 전주대학교, 전북CBS

┃주관 :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

